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농약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만?**

A

아토피성 피부염과 농약 사이에 관련이 있는 듯한 인상을 남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약과 아토피성 피부염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나타낸 보고는 없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 단계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즉, 치료하기 힘든 습진에 걸리게 하는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체질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적인 체질」로서는 몸속에 이물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 작용하는 IgE항체를 쉽게 만들어내는 「알레르기 체질」과 피부가 쉽게 건조하고 자극에 약한 「배리어성 장해」가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IgE항체와 결합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과 알레르기 반응과는 관계없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항원 이외의 외적 자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아토피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병에 이르는 인자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로서는 진드기, 먼지(집안먼지), 꽃가루 또는 계란, 우유, 대두와 같은 음식 등의 알레르기, 세균, 곰팡이, 스트레스, 대기오염, 배기가스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주역이고 어떤 것이 조역인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토피성 피부염 그 자체도 알레르기 반응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농약에서는 등록 신청 시 피부 자극성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이 이루어지며 그 외의 동물을 사용한 시험에서도 그 물질 투여에 의한 영향을 관찰하여 문제의 유무를 확실히 확인합니다.

Q

베트남전쟁에서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고엽제가 사용되어 이를 맞은 부모로부터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농약에는 다이옥신류와 같은 독성이 강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A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오렌지제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던 제초제 2,4-T와 2,4-D를 반 씩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2,4-T에는 불순물로서 미량의 다이옥신류(다이옥신은 1종류의 물질이 아니라 전부 222종류가 있는 화합물의 총칭)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떤 농약에 대해서도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상당히 정밀한 분석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약의 유효 성분은 그 제조방법, 제조장소, 불순물 성분 및 그 함유율 등이 등록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이용되는 보조 성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됩니다.



곰팡이 독은 위험해

농작물 재배 시 병해충 방제를 소홀히 하여 미생물이 번식하면 인체에 유해한 독소를 생성합니다. 곰팡이가 분비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은 발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급성독성도 매우 강합니다.